

유엔군 노병 소원 풀어주는 용호동의 ‘소녀 외교관’

■ 용문초등 5학년 캠벨 에이시아의 활약

“유엔군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다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난 11일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톤 투워드부산 추모행사, 고령의 참전용사들과 스스럼없이 기념촬영을 하던 얼룩무늬 군복 차림의 어린 소녀가 유독 눈에 띄었다. 소녀의 이름은 캠벨 에이시아. 한국인 어머니와 캐나다인 아버지를 둔 올레 만 열살이다. 이국적 분위기와 달리 용호동에서 나고 자란 남구 토박이다. 용문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다. “군복을 입고 나타나면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다들 좋아하세요.”

에이시아의 별명은 ‘민간 외교관’이다. 유엔기념공원 등 유엔군 참전용사 행사장에 어김없이 나타나 참전용사들을 살갑게 맞아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에이시아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에이시아는 근래 엄마와 함께 6·25때 네덜란드 군인들과 함께 싸우다 숨진 한국인 카투사 명단 찾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네덜란드는 6·25때 반호이츠 보병부대를 파병해 이중 124명이 전사했다. 이때 반호이츠부대를 도와 함께 싸우던 한국인 카투사 부대원 20여명도 숨졌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들 카투사 대원들의 이름을 몰라 지금껏 무명용사로 남아 있다. 현지 네덜란드 부대 입구에 전사자 명단이 적힌 참전기념

비가 있는데 이들 카투사는 모두 빠져 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협회는 오래전부터 카투사 전사자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그러던 차에 에이시아의 이야기가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두 달 전 ‘자신들을 대신해 카투사의 이름을 알아봐 줄 수 없겠느냐’며 이 꼬마 외교관에

게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이다. 모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탐정’ 처럼 추적에 들어갔다. 부산지방보훈청, 언론사를 찾아가고 생존 카투사 최병수 중 등의 도움을 받아 무명용사 이름 찾기에 나선 결과 20명 중 10명의 신원을 최근 알아냈다. 정부 기관도 하지 못한 일이다. 에이시아는 남구가 유엔참전용사들을 위해 발행한 영자신문과 함께 이들을 10명의 이름을 네덜란드 참전용사협회로 보냈다.

에이시아가 유엔참전용사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 해 전으로 거슬러간다. 사단법인 H2O품앗이운동본부에서 개최한 ‘한국전쟁 유엔 참전용사 감사편지쓰기’ 대회에서 초등부 대상을 받아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로 가서 참전용사들을 만나면서였다. 반호이츠 부대도 이때 방문했다. 당시 만난 참전용사들과 지금도 손편지를 주고받으며 나이와 국경, 언어를 뛰어넘어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유엔기념공원에 잠든 전우에게 대신 안부를 전해 달라’는 어느 참전용사의 부탁으로 꾸준히 편지를 하는가 하면 유엔기념공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의 참전용사들을 위해 VR카메라로 행사 현장을 360도 촬영해 이메일로 보내기도 한다. 지난해는 전쟁 휴유증으로 50년 남

게 집을 이루지 못하는 어느 미국 참전용사를 보훈행사장에서 만나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병세를 기적적으로

로 덜어주기도 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다”는 에이시아에게 지금껏 몇 명의 참전용사들을 만났느냐 묻자 “너무 많아 셀 수 없다”며 또래 어느 아이들처럼 웃었다.

“송고한 회생은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그보다 슬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카투사 전사자들도 꼭 찾아내고 싶어요.” 열살 꼬마 외교관의 다짐이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캠벨 에이시아가 찾은 네덜란드 반호이츠 부대와 함께 싸우다 전사한 한국인 카투사 명단. 괄호 안은 군번.
△박임기(K1120892) △배재규(K1120951) △김순숙(K120984) △김용관(K122669) △석황운(K1122593) △현상욱(0692738) △김재이(K1122535) △정관식(0180911) △신현규(K1126549) △박복술(0685851)



캠벨 에이시아 양이 지난 11일 톤투워드부산 행사에서 유엔군 전몰용사 유족에게 손글씨로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6·25 때 함께 싸우다 숨진 한국인 카투사의 이름을 알아봐 달라”는 네덜란드 참전용사협회 부탁으로 서울까지 올라가 생존한 카투사 대원 박경찬 용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에이시아 모습.



남구 한부현 팀장 청백봉사상

공직사회 최고 명예… 예산절감 등 ‘살림꾼’ 정평

말은바 직무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전국의 청백리들에게 수여하는 2018년도 제42회 청백봉사상 수상자로 남구 시설관리사업소 한부현 시설팀장이 선정됐다.

한 팀장은 남다른 성실함과 강직함으로 구정 내에서 일찍이 ‘알뜰 살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92년 공직에 입문, 26년째 남구에서 공사업무와 용역감독 등 구정 살림을 도맡으면서도 단 한건의 부조리에 연루되지 않았다. 남구 공공청사건립,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건립, 골목시장 시설현대화, 남구실내빙상장 건립 등 69개의 크고 작은 구정 현안사업에 실무를 맡으며 빈틈없는 업무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저소득 동네 공동화장

실 구축을 통해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 또 매일 아침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선행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한 팀장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된 게 이런 영예를 안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청백봉사상에는 한 팀장을 포함해 전국에서 9명의 본상 수상자와 1명의 대상 수상자가 나왔다. 이들 수상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갖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과 예산 절감 등에 기여했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전국의 5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



로 매년 수여하는 청백봉사상은 1977년 제정돼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명예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까지 총 799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부상 그리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부부동반 해외연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12회 김인 국수배 바둑대회

용호동 양경선씨 개인전 우승

용호동에 거주하는 양 경선(72)씨가 제12회 김인 국수배 국제시니어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4일 전남 강진군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바둑대회에서 양 씨는 가력 제한이 없는 개인전 B부문에서 5승 전승으로 우승컵을 안았다. 양씨는 10년 전 같은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14일부터 바둑에 입문한 양 씨는 아마 9단의 실력으로 인터넷 바둑사이트 타이젠에서 인터넷 강의로 열고 있다.



박문화씨 부산국제미술대전 특선

문헌동에 사는 박문화씨가 제1회 부산국제미술대전에서 작품 ‘돌칼과 빔열’로 특선에 선정됐다. 석재와 유리로 만든 이 작품은 ‘자유, 평등, 정의로운 권세(돌칼)는 깨닫고 투명해 깨어질지언정 타협하지 않는다’는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미술대전 수상작들은 오는 12월 4~6일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조형예술고, 전국체전 펜싱 단체전 은메달

3학년 김지우 선수 개인 동메달

용호동의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교장 이연호)가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 펜싱경기에서 단체전 은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수상했다.

조형고는 단체전(3년 김지우, 2년 홍승아, 1년 오승연)에선 대구, 인천, 충남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전남 대표팀에게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수상했다. 한편 사브르 김지우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해 단체전 은메달과 함께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조형고의 펜싱 여자 사브르



팀은 2003년 창단해 국가대표 출신 이라진(인천 중구청), 김지연(익산시청), 윤지수(서울시청) 선수 등을 배출했다.

대동골문화센터 여성극단 ‘봄’ 성료

여성극단 봄의 연극 ‘해운대 엘레지’가 지난 18일 대동골문화센터에서 공연됐다. ‘엄마의 일기’가 부제인 이번 연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극단 ‘봄’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주부들이 뭉쳐 2015년 창단한 순수 민간 연극동아리로 해운대 엘레지는 6번째 작품이다.

유료광고

2년만에 졸업하는 성인 어머니(중·고등) 고등학생 모집

● 학력인정 부산예원고등학교 ● 병설예원여자중학교

늦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공부 할 차례입니다!

주간반(9시) / 야간반(6시)	
중학교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 편입 가능 졸업장 취득(검정고시 없음) 입학금, 교과서, 수업료 전액 무료
고등학교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졸업자 / 고교 편입가능 졸업 후 대학진학 가능(수시 가능) 교육비: 한달 16,660원 기초수급자 수업료 전액 무료
본교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부 지정 어머니 학교 21년 전통 부산 최고의 여성 전문 교육 학교 부산에서 유일하게 어머니들만 공부하는 학교 어머니들만 공부하는 전용 건물 중학교 예비학교 무료 운영 (국·영·수 기초수업)

버 스 42(남구)/99(진시장)/179(당감동)/184(정관)→육성화학 하차→학교
4호선 명장역 2번 출구→99/42번 버스→육성화학 하차→학교
4호선 금사역 3번 출구→마을버스6번(신수촌아파트↔온천장역)→회동동 하차→학교
1호선 온천장역 4번 출구→마을버스6번→회동동 하차→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1(회동동) 입학상담 (051) 526-1852~3

유료광고

고통적 장례문화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부모 형제처럼...”

MOU협약단체에는 **특별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배 도 성

· 남·수영구 주민 **빈소 50%할인**
· 국가유공자, 생환보호대상자는 빈소 무료 (일반실에 한함)
장제비 (교인용품)는 50만원으로 행사를 치러드립니다.

BHS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5 (명안동) T. (051) 751-1860-1

BHS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구 동래백병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21 (부곡동) T. (051) 582-1041 (24시간 행사팀)

기장병원 장례식장 T. (051) 724-1024

S2 FLOWER 메스틱 꽃집/이
계단장식 전문/근조, 축화환, 화분
T. (051) 627-4880 F. (051) 622-1045

유료광고

청결이 곧 맛입니다

남구 음식점위생등급제 인증업소

청춘횡집 (등급 ★ 좋음 GOOD)	본도시락 대연점 (등급 ★ 좋음 G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소: 수영로250번길19 연락처: ☎903-0662 주메뉴: 생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소: 수영로237 (대연동) 연락처: ☎625-4282 주메뉴: 도시락류 (한식)
다이닝센 부산본점 (등급 ★ 좋음 GOOD)	스시정 (등급 ★ 좋음 G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소: 용호로88, 3, 4층 (용호동) 연락처: ☎621-8833 (단체석60석 완비) 메 뉴: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소: 용호로42번길49 (용호동) 연락처: ☎625-6225 메 뉴: 스시 (배달전문)

※ 음식점위생등급제 인증업소인 식약처의 등급별 위생향목평가를 통과하여 인증획득한 업소를 말합니다. 문의 607-4416